

#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KOSPI 반전(反轉). 6개월 연속 하락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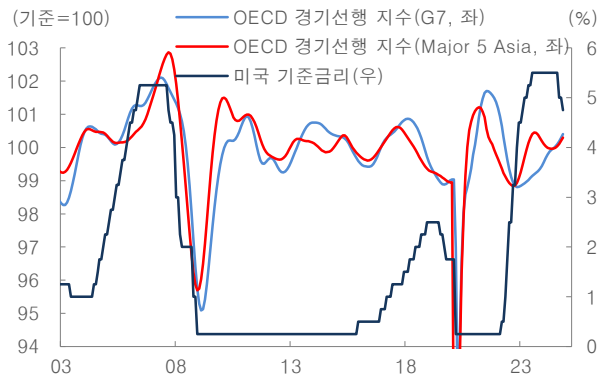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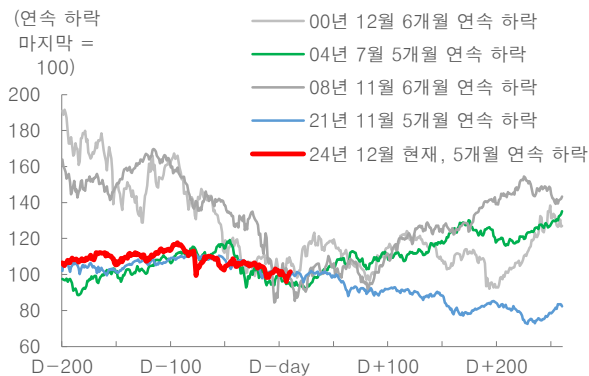
- KOSPI 급반등으로 2,500선 근접. 6개월만에 월간 수익률 플러스 반전 가능성
- 04년 7월 흐름 주목. 대내 불확실성 완화 시 우호적인 대외 모멘텀에 KOSPI 강세
-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 미중 소비 동력 + 12월 수급 계절성 = KOSPI 반전 지속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2,360p까지 하락했던 KOSPI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였다. 4거래일 연속 급반등하며 저점대비 130p 이상 올라 단숨에 2,500선에 근접했다. 이로써 KOSPI 12월 월간 수익률은 플러스 반전했다. KOSPI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 마감했다. 12월 첫째주까지 -1.13%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0년 이후 5개월 이상 연속 약세를 기록 한 경우는 단 네 번에 불과하다. 2000년 12월과 2008년 11월은 6개월 연속하락했는데, IT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다. 버블붕괴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KOSPI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 5개월 연속 하락은 2004년 7월과 21년 11월이었다. 2004년 7월은 국내 카드사태 이슈, 21년 1월은 글로벌 경기 정점통과와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이 맞물린 시점이었다.

현재로서는 2004년 7월과 유사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 높다. 당시 KOSPI 약세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인상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기도 했지만, 국내 카드사태 여파로 KOSPI의 차별적인 약세가 전개되었다. 이후 사태 해결과 글로벌 경기 회복, 중국 경기 모멘텀 강화 등의 영향으로 빠른 분위기 반전이 가능했다. 이번에도 국내 내수 불안, 자체 동력 부재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세한 결과, KOSPI는 차별적인 약세를 보여왔다. 반면, 글로벌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빨라지고 정책드라이브는 강화되면서 글로벌, 특히 Non-US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G7 OECD 경기선행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흥 아시아 경기선행지수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한국 수출, 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변화다.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명확해지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KOSPI의 반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다음주 중국(16일), 미국(17일)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를 확인하면서 여전히 견고한 미국 경기와 함께 중국 경기 회복세를 재확인할 수 있다. 19일 12월 FOMC 이후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안도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연말까지 12월 수급 계절성(외국인 선물 매수, 기관 프로그램 매수)이 지속/강화될 것이다. KOSPI 2,500선 돌파/안착과정에서 단기 등락이 있더라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5 개월 이상 연속 하락 이후 KOSPI 추이. 2004 년 7 월과 유사한 패턴 예상. 글로벌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뚜렷



자료: FnGuide, OECD, FED,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